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클럽 회보

GOLDEN CLUB NEWSLETTER

AUGUST 2024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48



몸과 마음의 피로를 말끔히 풀어준 월킬 골프대회

월킬에서의 골프 라운딩은 만감이 교차되는 대회였다고나 할까. 아무튼 내게는 그런 특별한 자리였다. 9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도 그랬지만, 퀸즈지역이나 롱아일랜드 지역 거주 회원들에게 특별히 운영팀에서 밴을 이용하도록 주선해준 점, 그러나 이용자가 단 5명뿐이었는데도 내가 참가하는 바람에, 4명으로 예상됐던 승용차 운용이 비싼 경비가 들어가는 밴으로 바뀌었다는 점, 그 것이 내게는 좀 미안하기도 했지만 이내 동승자 5명이 하나 되어 즐겁게 오가는 바람에 미안함은 저리가고 오히려 기쁨이 배가 되는 정말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였다.

월킬 골프장은 거리는 좀 멀지만 막상 가서 보면 그런 생각이 말끔이 사라진다. 곳곳에 들어찬 크고 작은 나무숲이 골퍼들의 평소 찌든 몸과 마음의 피로를 한방에 풀어줄 만큼 아름답고 신선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날따라 바람이 산들 산들, 무더위에 습한 기운을 어느정도 날리면서 공을 치는 즐거움과 쾌감을 누렸다.

이런 기분에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흥분하며 먼 거리도 마다하고 달려가서 즐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공이 잘 맞고 덜 맞고가 뭐 그런 중요한 것인가.

모처럼 하나가 된 흥예경, 조승자씨와의 라운딩은 또 하나의 새로운 추억이 되었다. 알고 보니 우리는 셋중 내가 제일 막내 빨로 차례로 한해씩 터울이 올라가는 사이였다, 매홀 기다리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화제로 대화하고 시종일관 까르륵 까르륵 웃다 보니 어느새 정도 들고, 마치 자매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라운딩을 마치고 회원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꿀맛 같은 저녁식사, 시원한 음료로 하루의 더위를 씻었다. 즐거운 대화를 나누다 보니 또 헤어져야 하는 시간, 아쉬움 속에 성기로, 배상규, 천병수, 노승만 회원과 함께 퀸즈행 밴에 또 몸을 실었다.

다음의 만남을 또 기약하며

[여주영(명예회원)]

가족 피크닉 안내



작년에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여름 피크닉을 올해도 Alpine Pavillion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마침 뉴욕동창회가 8월에 피크닉을 계획하고 있어서 회원들의 피로를 덜고 후배 회원들과 가까이 하기위하여 올해는 합동으로 행사를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족피크닉으로 확장해서 회원뿐만 아니라 가족들 특히 손주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각종 게임과 장기 자랑외에 특히 손주들이 그동안 갖고 닳은 재주를 선보이는 시간으로 참석하는 손주들에게 풍성한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들께서도 이날 가족피크닉이 좀더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행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음식과 진행, 등 여러가지면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주시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니 많은 도움 바랍니다.

날짜: 8월 22일 목요일 11시 - 3시

장소: Alpine Pavillion

Address: Alpine Boat Basin, Alpine, NJ 07620

(Palisades Parkway exit 2에서 Boat Basin쪽으로 내려감)

문의: 김정필 (201-965-7759)

회비: 없음

8월 골프대회

2024년 8월 골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4월에 올해 첫 대회를 했던 Sunset Valley Golf Club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기대합니다.

일시: 2024년 8월 15일 목요일 11:00

10시까지는 도착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장소(저녁 포함): Sunset Valley Golf

47 W Sunset Rd,

Pompton Plains, NJ 07444

회비: \$120

등록: 김병순 (kbs8717@gmail.com/703-407-4928)



뉴욕지구 동창회 소식

46대 동창회의 집행부 구성입니다.

이사장 권정덕

고문 정해민 홍종만

회장 김정필

감사 임창우

제1부회장 김병순

사무총장 이창길

홍보국장 이영주

행사국장 강병승 차장 윤자영

음악국장 정경희

골프국장 김병순

IT 위원회 우규환

장학위원회 위원장 성기로

총무 박제순

행사안내

이사회 8월초

임시총회 및 야유회 8월 22일 (목)

장학기금 대상자 선정 10월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 (I) 10월 10일

젊은 동문들 초청 Open Forum (I) - 11월

정기총회/송년회 12월 7일

젊은 동문들 초청 Open Forum (II) - 2025년 2월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 (II) 2025년 5월

7월 11일 Wallkill 골프대회 보고

참가인원: 29명

입상자: close pin: 성기로 이위곤 여주영 김광현

1등: 임도혁 (-6)

2등: 홍종만 (-6) 한태진 (-4)

3등: 송학린 (-2) 성기로 (E) 이종대 (E)

비용결산: 수입	\$3480.00
지출	
그린피와 식사	\$2464.00
점심	\$ 280.00
van 임대	\$ 400.00
상금	\$ 360.00
잔액	(\$-404.00)



입상자: 임도혁 이종대 성기로 송학린 한태진 홍종만 김병순



Close pin: 이위곤 성기로 여주영 김광현 김병순



7월4일 명예회장님 방문: 손경택 홍종만 이준행 김정필 강혜미 홍예경

46대 뉴욕지구 동창회장을 맡으면서

■ 김정필 (공대71)

먼저 부족한 사람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뉴욕 동문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맡은 임기동안 동문들의 화합,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동문회 회장을 서로 안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21-23년에 제1부회장을 맡았지만 골든클럽 사무총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중복 및 과다로 사양하여 23-24년도에 다른 분이 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장과 제1부회장이 없이 1년을 지나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곡절끝에 다시 제게로 차례가 와서 회장을 맡게 되었는데, 제가 한 첫번째 일이 차기 회장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김병순 (82사회) 동문이 차기 회장으로 정해지니 동창회 모든 업무가 안정감있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느낌입니다.

골든클럽은 60년대 학번이 주축으로 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동문회에도 80학번 이후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여 이번 임기동안 어떻게 하든지 80학번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동문회는 비교적 젊은 동문들이 주축이 되고 골든클럽이 잘 지원해나가는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80년대 학번들이 골든클럽의 미래 회원들이 될것이니깐요.

지난 3년동안 코비드 등으로 인하여 단과대학 모임이 비활성화되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단과대학 회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동문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과대학 동문회의 모임을 장려하고 필요한 조직을 정비하여 활성화하는 일입니다. 뉴욕지구 동창회에서는 아우회/연말 송년회/골프대회 등 분기별로 행사가 있습니다. 단과대학 동문회가 활성화되어야 모임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뉴욕지구 동창회 모임에도 참여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문회는 간려진 순수 친목모임으로 비교적 간단한 정관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사회가 복잡해지고 비대면 모임이 증가하고 관례로 행해오던 일들에 대하여 서로 해석이 다를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개월에 걸쳐서 정관을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개정하여 12월 정기총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지난 1년간 뉴욕동창회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지냈습니다. 소통의 결여와 오해가 있었고 그로 인해 모두가 불편해하고 마음이 상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지나고 보니 그리 큰일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동문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당사자들 간에서 서로의 처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주는 것 (역지사지 易地思之) 입니다.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이해 안되는 것은 조용히 문의해주고 불편한 것은 잠시 참아가면서 한국 최고의 지성답게 힘을 모아 만날 때 마다 기쁘고 빨리 또 만나고 싶은 동문회가 되기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갑시다.

회고 전시회 “흔적을 남기고 김광현 동문회원 소개

■ 정리: 김영천 (약대72)

김광현(미대 1957) 회원은 충북 단양 출생으로 서울사범학교(현 서울교육대학교) 졸업 후 2년간의 의무 교사 생활을 마치고, 서울대 미술대학 응용미술과 진학, 졸업후에 뉴욕 Pratt Institute 대학교에서 패키지 디자인(Package Design)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았다. 김작가는, 한국 전쟁 직후 한국인들의 정치적 경제적으로 생활이 무척 어려운 시기에 성장하며 장래를 두고 고민하는 젊은이로, 어린시절 꿈인 순수미술 전공으로는 장래의 생활이 어렵겠다는 생각으로 산업디자인과에 진학하기로 결정했다고 회상했다.

마침 1970년경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의 빈약한 부존자원을 극복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시행하는 시기였다. 수출의 한 동력원이 되는 산업디자인의 육성정책으로 한국 산업디자인 발전 40여년을 한국산업디자인 분야에 선두주자의 한사람으로 국가적 중요정책 수립을 위해 많은 조언과 참여, 기업들의 산업디자인의 효용성과 활용성에 관한 자문은 물론 디자인 개발전략 등의 실용성을 역설하고 실행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또한, 후진 양성에 매진하였으며 국제적 행사의 유치 및 한국 디자인의 우수성과 실용성을 홍보하며 각종 디자인단체들의 개발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참여하고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

김광현 작가는 한양 대학교 응용미술학과 교수 및 학장 연임, 홍익대학교,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및 학장,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 등에서 후학들의 교육과 산업디자인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1973년-1981년 재미 중, JCPenney Co., Cadence Industrial Co. 수석 디자이너, New York, Packaging System Inc., 디자인 감독으로 실무를 쌓았고, 1991년, 네덜란드에서 개최한 제31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파견, 디자인부분의 심사위원으로 한국인 선수로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특히 국내디자인 발전의 격상을 위해 국, 내외의 세미나인 국제디자인대회에서의 디자인 관련 발제자로 또는, 산업디자인분야의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했으며 특기 사항으로는 한국포장디자인학회 초대회장, The Asia Package Design in Seoul(1993)위원장, 한국은행, 정부수립 50주년 주화디자인 심의위원(1998년), 한국 시각정보디자인협회 회장(1998-1999년), 한국디자인개발원 이사, 제29-31회 국제기능 올림픽심사위원, 세계 대표적 디자인 기관인 ICOGRADA 제18차 한국대표 등이 있다.



환희, 유화물감, 36x24in, 2014

김광현 작가는 40년 이상 산업디자인 분야에서 일해 왔으며, 순수 회화 작업도 꾸준히 해오며 5회의 개인전과 해외 및 국내 30여 차례 그룹전을 가졌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88년의 88' 서울 올림픽 개최식 카드섹션, 메인스타디움 개, 폐회식장 디자인도 김광현 동문의 작품이며 국내 기업들의 기업이미지(Corporate Identity) 디자인도 담당하기도 했다.

김회원은 미술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며 미국 및 한국포장 디자인 발전에 관한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그중 한국포장디자인 발전의 장애요인 (한국 포장디자인학회지, 제1호1994.6.25), 불황시 Package Design 개발과 Re-design에 대한 소고(한국 포장디자인학회지), 및 불경기에 처한 산업계에 많은 영향을 주려고 노력도 했다.

그는 미술대학 재학시절부터 후학들을 위한 100여편의 논문과 논단을 써왔으며 이번 회고전의 도록에도 미술사 중심의 귀한 Essay 14편을 실리기도 한다. 김광현 작가의 활동 중에 많은 표창과 수상을 했는데, 그중 특기할 만한 것은 다음과 같다. 제10회 국전 공예디자인부 문교부장관상(1961), 미국청년디자인 컴페티션 최고상 (1974), 국가산업발전 기여 대통령 표창(1989), 석탑산업훈장(1991), 세계 최대 그래픽디자인 협의회 Excellence상 (ICOGRADA 1999), 제17회 백남학술상 (2000) 과 Pratt Institute(2010)우수 동문상이 있다.

김회원은 1963년 청명한 가을의 한 주일날 사위가 될 본인을 불검, 출석하는 교회의 초청으로 온 목사님(김춘배 -1948-1967 한국기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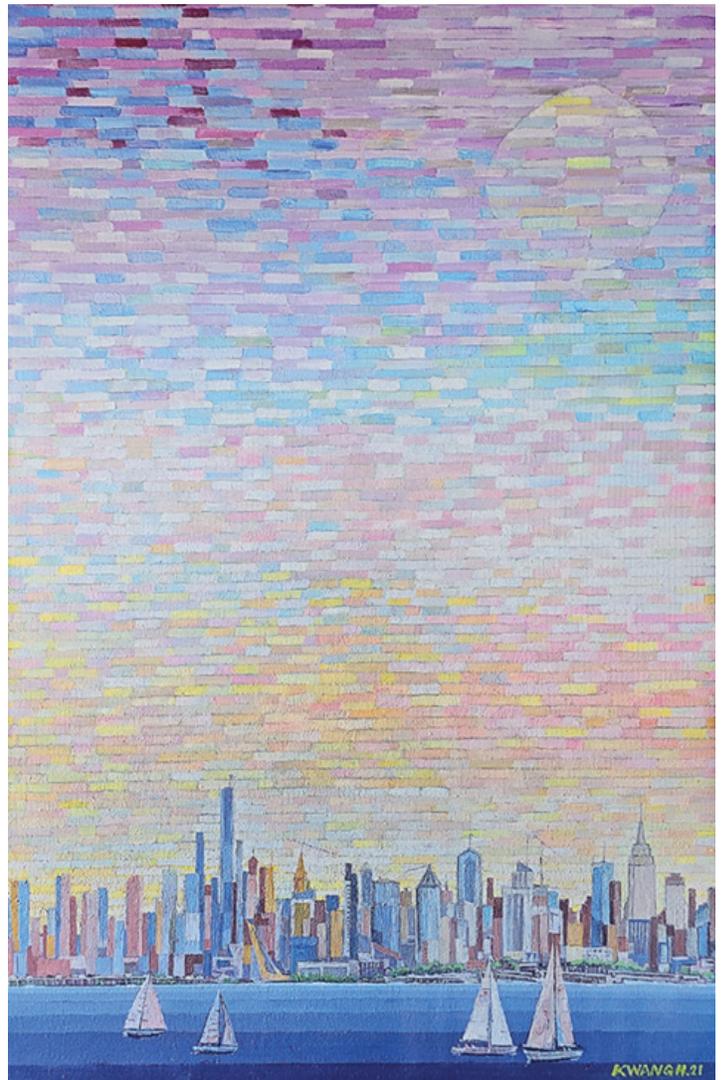
교 교회 총무))의 막내 딸과 결혼, 53년을 함께한 부인과는 6년전에 운명을 달리하였다. 부부간에 두딸(Jacki, Stephanie)부부와 대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손녀 셋(janah, Sorah and Wren)을 두고 있다. 2012년 11월 30일 부부 전(서양화, 도자기)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과 취미는 탁구, 골프를 즐기고 “보생와사”(步生臥死,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는 뜻) 라는 말처럼, 아침 저녁으로 자전거를 각 30분씩 타며 집에서 가까운 거리인 워싱턴 브리지 밑을 지나는 산책길을 걸기도 한다. 한편 골프는 주 1-2번 정도로 필드에 나가며 덩거나 춤지 않으면 18홀을 걸어가기도 한다고 한다. 골든클럽에 참가한 동기는 동문들을 만나며 본인이 잘 모르는 각종 우리 삶의 정보를 서로 나누고 싶고 알고 싶으며, 동문들의 얼굴을 보며 미소를 나누고 바른 생활과 좋은 건강유지의 노하우도 알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회는 뉴저지 잉글우드에 위치한 뉴저지 참된교회 (담임목사 박순진)에 주일마다 출석하며 교인들을 만나며 교우심을 갖기도 한다. 김동문의 생활 신조와 규범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고인이 된 시인 누님이 남겨준 좌우명, 즉 “상항 따라 식은 죽 먹듯 약속을 버리지 말고, 사람 따라 형편 따라 마음 달리하지 말고, 약속을 양심처럼, 신의를 반석처럼, 지조를 생명처럼, 살며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겸손과 끈음을 가져야 된다” 고 했듯이 이를 기억하며 실행하도록 노력하고 오늘 날까지 지켜왔다고 한다.

이번 김광현 회원의 회고전은 1960년대의 각종 그래픽디자인 작품들과 지난 40여년간 몸 담아왔던 대학교에서 정년퇴직후 항상 동경해 오던 순수미술 작업에 애착을 갖게 되면서 어릴 적의 꿈을 품고 작업해온 유화, 아크릴화와 다양한 소재로 제작, 선별한 그림 72점과 그래픽디자인의 각종 일러스트레이션 및 기업 심볼디자인 등 25여점 포함, 100여점과 국, 영문의 미술사 중심 “에세이”와 수상 등 14편도 도록에 실린다고 한다.

작가의 회고전은 디지털화 한 기계에 의해 만들어 낸 작품도, AI에 의해 좀 간편하고 편리하게 완성된 그림이 아닌 한점 또 한점, 붓과 각종의 물감으로 그린, 우리들에게서 잊혀지고 점차 소멸되어지기 쉬운 것인 감성과 감각적인 “그림의 맛”의 표현으로 회화작업의 어떤 표현과 규범을 지키기 보다는 자유롭고 편한 마음으로 내 자신이 붓 가는 대로 표현해 일률성을 탈피하기도 했다. 작가의 시각전달디자인 전공을 살려, 섬세하고 아날로그 성 그림과 전달성 및 시각성의 디자인적 요소들을 결합한 독특한 화풍의 작품들이라고 하겠다. 금년 9월, 뉴저지에서 갖게 되는 회고전시회는 오늘 날까지 살아온 지난 세월을 돌아보는 김동문이 조형작업에 몰두, “흔적을 남기고”로 최선을 다 하지 못한, 즉, 부족했던 그림으로 많은 분들에게 보여야 하는 지의 “망설임”과 “흔적을 남기자” 라는 결심이 서로 교차되었지만 부족함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작품들을 남기려는 용기를 가졌다.

김광현 동문의 회고전시회를 갖기 위해 큰 격려와 많은 도움을 주신 이 준행 골든클럽 명예회장님의 만수하시기를 바라며 또한 많은 서울대학교 동문들과 골든클럽 회원 및 친우들에게도 큰 감사의 말을 했다.



맨하탄의 인상, 유화물감, 36x24in, 2022



회고전 준비를 위하여 김영천 회원에게 그동안 수장한 자료들을 설명하시는 김광현 작가

여행은 가성비가 낮다

■ 김충정(문리64)



Preikestolen

Norway 3대 트레킹의 하나로 해발 600m의 수직 절벽 바위인데 아찔하고 숨막히는 절경이다.

금년 봄 여행을 좋아하는 친구에게 금년 여행 계획을 얘기하는 중 친구가 "이제 여행 그만 하려고 해요. 여행은 가성비가 너무 낮아요" 하고 말하는 걸 들으며 '그래, 여행은 단순히 비용 대비할 때, 얻는 게 크진 않지'라는 생각이 나도 들어 동감이 되며, 이번 여행 내내 화두가 되어 곱씹게 되었다.

난 그동안 여러 장기 여행을 하면서 나름의 원칙을 갖게 되었다. 그 첫째가 가능한 걷는 것이다. 나왔으니 본전 생각하여 싫든 좋든 집 밖으로 나가야 하고 그러다 보면 매일 근 2만보이상 걷게 된다. 30분 정도 거리는 걸어 움직이는 걸 원칙으로 하고, No Taxi. 멀면 대중교통 이용을 한다.

둘째는 음식은 해서 먹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숙소를 아파트로 정한다. 집밥만큼 좋은 게 없고, 여행 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다. 아내가 귀찮아 하지 않으니 가능한 것이다. 이런 아내가 곁에 있다는 건 내겐 큰 복이다.

셋째 가능하면 돈을 적게 쓰고 아끼려 한다. 젊을 때와 달리 굳이 먹지 않아도 불편하거나 아쉽지 않다. 이번 여행에서도 제대로 된 식당에서 식사한 게 서너 번뿐. 커피도 아침에 숙소에서, 봉지 커피 혹은 가루 커피로 해결한다. 모든 게 생각 나름이다.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가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둘째가 여행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지 않는 것이다.

일상의 삶을 장소만 옮긴다는 생각을 갖는다. 그렇지만 가능한 여행 정보를 잘 정리하여 여행의 기대감을 높이고,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렘을 품는다. "낮선 곳에서 아침을" 가슴 떨리게 기다리는 마음을 갖는다. 나이가 들어가면 가슴 떨리는 일이 점점 줄어들지만 여행을 하다 보면 기대하지 않았던 경험을 자주 겪게 된다는 게 큰 잇점이다. Serendipity. 이걸 일상 생활에서는 그리 흔치 않은 일이기 에 낮선 곳에서 여러 날 살기를 시도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전보다 여행하기가 아주 많이 편해졌지만, 그래도 여행에서는 긴장감을 늦출 수 없고, 기억할 게 많다 보니 치매 예방에도 좋지 않을까 싶다.

이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는 여행할 수 없다. 일일이 티켓이나 일정 등을 프린트할 수 없으니 앱을 이용하여 예약하고 티켓 등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고, 현금보다 카드가 우선시 된다.

화장실 이용도 카드로 해결되고 전통시장에서도 카드를 받는다. Cashless시대, App사용 시대이다. 처음엔 너무 낯설고 약간의 불안감도 있지만 하다 보면 할 수 있고 도리어 편하다. 모든 걸 두려워하거나 자신감을 갖지 못하면 계속 불편하게 살게 되고 결국은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된다. 두 달 여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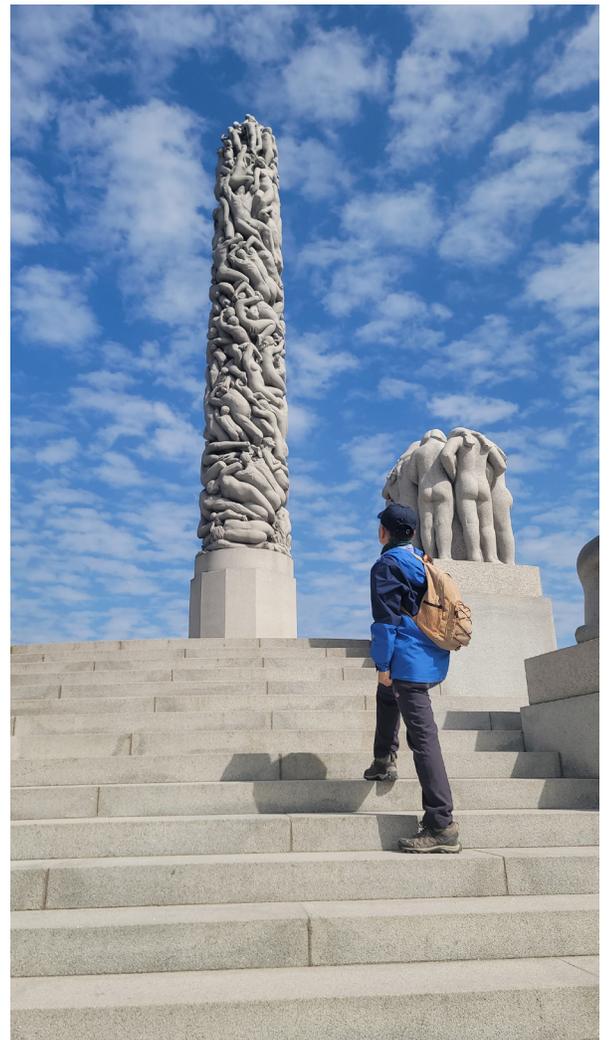
집은 여전히 편하고 좋다.
아파트 창밖에 맨하탄 스카이라인 절경이 아침 햇살에 빛을 뿜어 낸다.
그래 여기도 좋구나.
그래도 난 다시 떠날 날을 그리며 낯선 곳에서 아침을 먹고 싶다.

어디메라 정함없이 길을 나선다.
언제라는 기약도 없이 길을 떠난다.
가다 보면 길이 있고
걷다 보면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그 끝을 마름하면 길이 지루하고
목표가 생기면 바빠지고
주변이 보이지 않아 삭막하다.

그냥 걷는다.
맑고 밝은 푸른 하늘도
몽게구름도
간간히 뿌리는 빗방울도
잔뜩 낀 검은 구름에서
쏟아지는 장대비도 사랑하리라
오늘도 걷는다.
이 오늘이 있음을 감사하며...

Top:
매년 4,5월에 열리는 Kuekenhof는 금년이 75주년으로, 가을에 7백만 개의 구근을 심어 봄에 날짜 따라 피는 아주 다양한 튜립 꽃 축제다.

Right:
Vigeland Park
놀웨이 조각가 구스타브 비겔란의 야외 설치 조각공원으로 인간의 희노애락, 삶과 죽음을 잘 표현하였고, 121명의 사람들이 뒤엉켜 정상으로 올라가는 Monolith 기둥이 걸작이다. 그 주변에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는 36개의 조각이 둘러있다.



회원 명단 (111명 / 2024-7-25)

강교숙	김상만	배상규	윤상영	이흥빈	최학주 한민우 한영오 한태진/ 한용희 허유선 허정표 홍종만/ 홍예경
강에드	김승호	성기로	윤재욱	임도혁	
강영선	김영덕	손갑수	윤종숙	임호순	
계동휘	김영만	손경택	이강홍	정도현	
고애자	김우영	손대홍/	이민제	정수일	
곽상준	김익성	남종현	이상무	조달훈/	
곽선섭	김정필	손옥화	이상원	조승자	
곽승용	김종율	송근숙	이승준	정해민	
권문웅	김창수	송웅길/	이준	조상선	
권정덕/	김충정	송현자	이대연	주재양	
홍선경	김치갑	송학린	이대영	진봉일	
권영대	김태일	송혜순	이영범	천병수/	
권태전	김한중	신진식	이용대	천종화	
금영천	김현중	신응남	이위곤	최구진	
김광수	노승만	오순문	이전구	최병우	
김광현	노용면	오인석	이종대	최준희	
김동건	민준기	우규환	이종석	최한우	
김문경	박기환	유무영	이준행	한용오	
김문언	박상원	윤선구	이행순	한태진	
김병순	박희병		이흥빈	한용희	

2024년 연회비 납부 명단 87명 / \$8700 / 2024-7-25

강에드	김상만	박기환	오용호	이전구	진봉일	홍종만 홍예경 홍정표
강영선	김영덕	박상원	이위곤	이종석	천병수	
계동휘	김영만	박희병	오인석	이종대	천종화	
고애자	김우영	배상규	우규환	이준	최병우	
권문웅	김익성	성기로	윤상영	이행순	최준희	
권영대	김정필	손경택	윤선구	이흥빈	최한우	
권정덕	김종율	손갑수	윤재욱	임도혁	최학주	
권태전	김태일	손대홍	윤재욱	임호순	한민우	
금영천	김한중	송근숙	이강홍	주상선	한용오	
김광수	김홍빈	송학린	이대영	정수일	한태진	
김광현	김현중	신응남	이상원	정해민	한용희	
김동건	남종현	신두식	이승준	조달훈	허유선	
김문경	노승만	신진식	이영범	조승자	홍지복	
김병순	민준기	오순문	이용대	조상근	홍선경	

2024년 후원금 기부 명단 (27명 / \$12,200/2024-7-25)

강에드 200	김한중 300	이강홍 200	정수일 300
계동휘 300	노승만 100	이위곤 100	정해민 1000
권정덕 300	성기로 500	이전구 1000	최상립 2000
금영천 300	손경택 1500	이종대 200	최준희 400
김광현 200	신두식 200	이준 100	한태진 500
김문경 200	신진식 300	이행순 200	홍종만 1000
김종율 200	오용호 300	임호순 300	

2024년 입회비 납부 명단

한민우 200	이위곤 200
노승만 200	

발전기금 기부명단

이준행 10,000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 Golden Club**)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 Golden Club**,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입회비 \$200

단과대:

학과:

입학년도:

졸업년도:

연회비 \$100

전화번호:

Email:

후원금 (\$))

주소 (Home):

골든클럽 2024년 행사 일람 (2024-7-25)

1월	24일 (수)	Zoom 경제 세미나 (14명 참석)
2월	22일(목)	편집위원 운영위원 간담회
3월	21일 (목)	Hiking
	23일(토)	신년교례회 - Double Tree Hotel, NJ
4월	25일(목)	Golf Outing -Sunset Valley Golf Club (36명참가)
5월	23일 (목)	Hiking (6명 참가)
6월	6일(목)	Golf Outing - Split Rock Golf Club (45명참가)
	27일(목)	Hiking
7월	11일(목)	Golf Outing Walkkill Golf (29명참가)
	18일 (목)	Hiking
8월	15일 (목)	Golf Outing
	22일(목)	골든클럽 피크닉 -Alpine Pavillion
9월	12일(목)	Golf Outing
10월	10일(목)	동창회 추계골프대회
11월	7일(목)	Golf Outing
12월	7일(토)	뉴욕지역동창회 송년회 -Double Tree Hotel
	9일-14일	Myrtle Beach Golf Trip
3월	22일(토)	2025년 신년교례회

골든클럽 당구 모임: 매월 첫째/셋째 금요일 오후 1시
Star Billiards, Palisades Park, NJ



8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 곽상준(약대55)
- 김상만(법대52)
- 김한중(의대56)
- 남종현(가족)
- 노승만(공대63)
- 송웅길(대학원)
- 윤현남(공대64)
- 이대연(약대65)
- 정해민(법대55)
- 홍종만(공대64)

Zelle 사용안내: 골든클럽에 회비/후원금/참가비등을 Zelle 로 납부하실 분은 **keiusainc@gmail.com** (SNU Golden Club)에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때 message란에 영문이름과 내용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